



## 인간 생명은 왜 존엄한가?

풀을 뜯는 얼룩말이나 누 무리를 사자 같은 포식자들이 공격할 때 주로 잡혀 먹는 짐승은 튼튼하고 살찐 놈이 아니다. 거의 예외 없이 어리거나 병들어서 제대로 도망칠 수 없는 놈들이 희생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리 가운데 크고 튼튼한 녀석들은 그 어느 하나도 그 약한 짐승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 큰 무리가 한꺼번에 포식자에게 달려 들면 사자 한두 마리쯤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도망치기에만 바쁘다. 약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종족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우생학적 본능 때문일 것이다. 같은 종류에 속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도 없고 자살하는 짐승도 없다. 역시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 한때 레밍(lemming)이란 쥐가 집단적으로 자살한다는 설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다.

모든 다른 포식자들을 다 제압해 버린 인류는 짐승과 달리 그런 종족 보존의 자연적 본능을 갖고 있지 않다. 약한 사람을 죽도록 방치하지도 않거니와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같은 종족, 즉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본능도 없다. 그리고 짐승이 하지 않는 자살은 오히려 많이 한다. 그래서 인류의 존속과 개인의 생명 보존은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인위적인 당위(當爲)에 의하여 보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모든 사회는 종교, 전통, 풍속, 도덕, 법률 등을 통해서 살인을 금하고 자살을 만류하며 약자를 보호한다. 인간 생명의 보존은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책임'에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자연적 본능은 확실하고 예외가 없지만 문화는 인위적이므로 예외가 많고 확실하지도 않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연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므로 인간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파괴까지도 그만큼 더 인위적이 된다.

그동안 인류는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뛰어난 의술과 약을 개발했고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온갖 장치와 제도를 만들었다. 댐을 막아 홍수와 가뭄을 막고 비행기,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도구들을 더욱 안전하게 제조하며,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을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그래서 자연에 비해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훨씬 뛰어난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명 보호에는 인간이 오히려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자연재해는 2004년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였는데 그때 23만여 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300만 명이 넘고 나치 정권에 의하여 재판도 거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된다. 지금도 테러는 계속되고, 살상무기는 더 파괴적이 되며,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환경오염은 악화되며,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는 늘어나고, 살인과 자살은 줄어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낙태나 안락사까지 허용되고 있어 무수한 인명이 매일 희생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자연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간의 시도는 오히려 자연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리적 힘이 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은 바로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다. 과거에는 모든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금기 가운데 금기였다. 종교는 살인을 금하고 모든 사회에서 살인은 가장 끔직한 범죄였다. 법적인 처벌보다 초자연적인 보응을 더 두려워했고 사회적 제재도 매우 엄했다.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그런 전통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세속화되며 전통이 약해지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지고 살인에 대한 초자연적인 보응의 두려움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는 법적 처벌 외에는 생명을 보호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성, 본질, 실체 등 실증될 수 없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오늘의 학문은 생명의 존엄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도무지 왜 생명은 소중하며 사람의 생명은 왜 짐승의 생명과 다른지 아무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동물 생명 보호운동은 오히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상대화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1948년 국제연합이 〈보편인권선언〉을 발표하여 인권존중을 보장하려 한 것처럼 오늘날 인류가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인간 생명은 존엄해!” 하고 ‘선언’하는 것 같다. 생명 존중 선언, 헌장 등이 도처에서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자신을 포함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 생명 존중을 위해 확고한 근거를 제시한다. 사르트르(J.-P. Sartre)는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한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이 존중될 수 있다.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칙의 소중함을 알고 그에 충실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